

## 박근혜, 대구 지원사격... "추경호, 좋은 정책 마련할 것" [뉴스시스Pic]

등록 2026.05.23 16:19:58



[대구=뉴스시스] 이무열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의 지원 유세를 위해 대구 북구 칠성시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6.05.23. lmy@newsis.com

[대구=뉴스시스] 박주성 이무열 하지현 한은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후 첫 주말인 23일 대구의 전통시장을 찾아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이 공개 선거 유세 현장에 나선 건 탄핵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추 후보와 함께 대구 북구 칠성시장을 방문했다. 빨간 유세복을 입은 추 후보와 유명하 의원 등이 동행했다.

진한 노란색 셔츠를 착용한 박 전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일반 시민뿐 아니라 시장 상인과 지지자들 수백 명이 몰렸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외치며 중간중간 박수를 치고 추 후보를 번갈아 가며 연호했다.

박 전 대통령은 30여 분간 추 후보와 함께 시장을 돌며 시민들과 일일이 손을 잡고 악수하거나 하이파이브를 했다. 사람들은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건강하세요"라며 덕담을 건넸다.

한 시장 상인이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며 손으로 하트를 그리자, 박 전 대통령도 머리 위로 하트를 그리며 화답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시장 인사를 마친 뒤 "그동안 많은 분이 '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이어 "오랜만에 칠성 시장에 와서 이렇게 반가워해 주시는 여러분을 뵈면서 진작 와서 봐야 했는데 죄송한 마음도 들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다"며 "경제가 안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호 후보도 같이 오셔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다 잘 알고 계시니, 좋은 정책을 마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 등을 역임하며 '경제통'으로 불리는 추 후보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도 만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대구=뉴스시스] 이무열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대구 북구 칠성시장에 도착해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와 악수하고 있다. 2026.05.23. lmy@newsis.com



[대구=뉴스시스] 이무열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의 지원 유세를 위해 대구 북구 칠성시장을 찾아 상인과 악수하고 있다. 2026.05.23. lmy@newsis.com



[대구=뉴스시스] 이무열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의 지원 유세를 위해 대구 북구 칠성시장을 찾아 상인과 악수하고 있다. 2026.05.23. lmy@newsis.com



[대구=뉴스시스] 이무열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의 지원 유세를 위해 대구 북구 칠성시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6.05.23. lmy@newsis.com



[대구=뉴스시스] 이무열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의 지원 유세를 위해 대구 북구 칠성시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6.05.23. lmy@newsis.com



[대구=뉴스시스] 이무열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의 지원 유세를 위해 대구 북구 칠성시장을 찾아 상인과 악수하고 있다. 2026.05.23. lmy@newsis.com



[대구=뉴스시스] 이무열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의 지원 유세를 위해 대구 북구 칠성시장을 찾아 상인회장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2026.05.23. lmy@newsis.com

©공감언론 뉴스시스 park7691@newsis.com, lmy@newsis.com, judyha@newsis.com, gold@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